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삼성특검,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자료 확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7시께 이학수(62) 삼성전자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측 변호인단의 이원수 변호사와 함께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1997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을 맡은 이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구조조정본부장을 맡았으며 2006년 구조본이 전략기획실로 바뀐 이후 전략기획실장을 맡아온 삼성그룹의 '2인자'다.

그는 이견희 삼성 회장의 의중과 경영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룹의 주요 업무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삼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운용과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특검팀은 14일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관 3명을 이 회사로 보내 오후까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수사 대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다량의 문서나 물품들을 확보하는 통상의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대상과 장소를 한정해 필요한 자료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상당수 자료가 컴퓨터 파일로 압수됐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14일 삼성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정문에서 경비업체 직원들이 보안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BBK 특검, 李당선인 소환 않기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이 당선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의 조사 여부 및 방법, 시기에 대해 어떤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잠정적인 판단에 따라 소환 조사는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BBK 실소유 의혹과 관련, 지난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를 지난 13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된 광운대 동영상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BBK 실소유주가 이 당선인이라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BK 실소유주 관련 의혹으로 이 당선인을 소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측의 판단이다. 도곡동 땅 문제로 이 당선인을 소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특검이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인지 밝히는 것이 수사 목표"라고 공

인할 정도로 특검팀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당선인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곡동 땅이 당선인 소유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을 기소할 수 없다. /연합뉴스

김민복 前국정원장 조만간 소환

김민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김 전 원장이 12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진술서 분석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의 진술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의원 확보' 힐러리 추월

美대선 '포토맥' 경선후 집계...공화 매케인이 허커비 압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선두로 부상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1천200여명의 대의원을 확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미국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집계했다. 공화당에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800여명의 대의원을 얻어 도전자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200여명 확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에서 실시된 이른바 '포토맥 프라이머리'가 끝난 뒤 후보별 대의원 수를 집계한 결과, 오바마가 1천223명으로 힐러리(1천198명)를 25명 앞섰다고 보도했다. CNN도 후보별 대의원 수를 오바마 1천215명, 힐러리 1천190명으로 추산, 오바마가 25명 많았고 ABC 역시 오바마가 1천232명, 힐러리는 1천205명의

대의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포토맥 프라이머리'를 계기로 대의원 수에서 힐러리를 처음으로 추월하기 시작했으나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 2천25명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13일 현재 821명, 허커비가 241명의 대의원을 얻은 것으로 AP통신은

집계했다. CNN은 매케인 812명, 허커비 217명, ABC는 매케인 819명, 허커비 240명으로 대의원 수를 각각 집계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 후보 지명을 위한 대의원 '매직 넘버'가 1천191명으로 매케인이 이에 근접하고 있다. 언론사별 대의원 수 집계는 다른 것은 각 주와 지역별로 프라이머리(예비 경선) 또는 코커스(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대의원 산출 방법이 다르기 복잡한데다, '슈퍼 대의원'으로 불리는 비선출 대의원들의 후보별 지지 분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라이스 미국무 '깜짝 방북' 성사될까

25·26일 서울·평양 연쇄 방문 가능성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흘러나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이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평양에서 열리는 뉴욕 필 오케스트라 공연에 참석할 것이라는 게 '방북 시나리오'로, 지난달 말부터 한·미 외교가에서 가능성 차원에서 거론돼 왔다.

지난 12일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미 외교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라이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의 통선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라이스 장관의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순방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19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이스 장관의 방북설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뉴욕 필 공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2000년 10월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집단체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관람한 것과 비슷한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라이스 장관이 방북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소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놓고 보자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FTA 美의회 연내 처리 가능할까

대선 맞물려 통과 어려울 수도 한·미 정상회담서 돌파구 기대

한미관계의 최대현안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대선 등 미국의 정치일정과 미·콜롬비아FTA 처리 난항, 한국 쇄고기시장 전면재개 방 문제 등으로 미 의회에 아직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 의회는 미국산 쇄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회는 대선 일정 때문에 의회 회기 종료일을 9월 26일로 앞당겼고 8월9일부터는 휴회가 예정돼 있어 한미FTA 처리 시한이 촉박한 실정이다.

◇미국내 정치상황, FTA비준에 비호의적=이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이 5월초순 이전에 미 의회에 제출돼 8월8일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는 11월4일 미 대선 일정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미 의회에서 사실상 FTA 심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는 8월8일이 올해 FTA 처리의 마지막 시한이 될 수 있다. 또 부시 행정부가 현재 계류중인 FTA 서명순서를 '콜롬비아-파나마-한·미' 순으로 잡고 있는데다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미·콜롬비아FTA를 노조 탄압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처리가 시간을 많이 끌 경우 한미 FTA 심의기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비준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유력주자들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모두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 바 있다. ◇한미정부 비준의지 강력, 정상회담서 모멘텀 기대=하지만 FTA 비준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한미양국 정상회담이 4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고 쇄고기 문제 타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정통한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적극 활동을 모색하고 쇄고기 문제가 양국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극적 타결을 이룬다면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새로운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28일 국정연설을 통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도 조속한 시일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 일기내 FTA 통과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바 있다.

이 당선인 역시 지난 5일 에번스 리버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한 미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양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조기에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리 에펠탑 작년 689만명 입장 신기록

프랑스 에펠탑의 지난해 입장객이 전년보다 7만8천명이 많은 689만3천명에 달해 신기록을 수립했다.

전체 방문자 중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3분의 1은 밤에 방문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보다 4.7% 증가한 5천100만유로(한화 702억원)였다고 에펠탑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구스타브 에펠이 디자인한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됐으나 처음에는 보기 싫은 건물로 비난받기도 했다. 에펠탑은 당초 20년 후에 철거하도록 계획됐지만 프랑스 당국은 통신 타워와 자국 상징물로 사용하기 위해 존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40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본인출신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3월 3일 **광주고시학원**

027-4002-0002 / 027-4002-0002

2008년 (제6기) **한자 한문 지도사 자격모집**

모집인원: 100명

모집대상: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모집분야: 1. 한자·한문 지도사 2. 한자·한문 교정사

모집방법: 1. 2월 25일(수) 14:00~17:00 접수 2. 3월 1일(토) 09:00~12:00 시험

모집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삼성동) 한자학원

문의처: 02-552-1002

신춘할인기간 **청하**

일식요리의 명가

그동안 감사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이비 화제로 성하게 양의 국영하고 인적사항 재입하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에도 언제나 믿성만 코지보겠습니다. (대표: 홍순혁)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대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

광주광역시 동구 효천로 4가 2-1번지 **청하**

문의처: 02-223-7037 / 224-5002